



받은 사람: 한연지

서울 마포구 연남동 등교로 242-11

402호

우) 03982





초대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내 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에게 글을 남겨요. 몸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불태웠습니다. 재가 되어 초대하는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당신이 오지 않을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숨길 게 뭐 있겠나요 몸뚱이도 없는데. 사라진 몸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결정은 당신의 몫. 당신이 아는 내 몸은 없습니다. 그 몸과 가까워질 수도 감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어요. 늦었습니다. 끝. 이건 새로운 몸이 태어나는 순간에의 초대입니다. 의리로 와 주세요. 몸 - 죽음 - 탄생 - 몸 - 곁에 당신의 존재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새 몸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심과 함께, 고통과 함께, 당신도 함께. 사라진 몸은 끝끝내 살아내서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이미 머리가 큰 사람이 새 몸을 가지면 어떨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격의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감, 육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발을 떼려는 찰나

등지고 있던 사이

울리던 소리 곁으로

불분명한 아이 음성에 기대어 걸었던 수많은 걸음걸이 간격

우물 속으로 기어 들어가 떨어지고 말았던 기억

누가 뭐랬더라?

여전히 고여 있을까?

물에 불어 알아보지 못하는 모양새이면 어찌지?

그 밖으로 빠져나오면?

더 행복할까?

더 흥분될까?

침 뱉지 않으면 다행이야

눈물을 떨어트리면?

혹은

스스로를?

마음 돌 떠나서 그리움 떠나서 바다 속으로

퐁 - 덩

안녕

안

퐁 - 덩

녕

퐁 - 덩

2021년 11월

4829번째 발신자

많은 사실을 아는 세상과 많은 상상을 하는 세상이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크게 울었다던 당신
피아노 소리에 잠들던 당신
가까스로 바다에 닿는 것을 좋아했다

미치도록 싫어했던 동물원
그 때를 떠올리며 울던 당신은

어느 도시의 보도를 걷다 멈춘 당신
내게 물었다

내 코는 왜 이렇게 큰거죠?

나는 당신의 넓은 눈에 내 눈을 댄다
나는 당신과 세상을 깊숙히 밟는다

났다가 뜬 눈에는 반짝거리는 태도를 하고있는 소녀가 (다시)
등장한다

기억되는 존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싶어
무슨말을 해도 내동댕이치지 않을 자들을 향해 떠나고 싶어
우울해진 마음과 귀와 눈과 다리는 다시금 어딘가로 올라가고
싶어

중요한 부위란 하나가 아닌 것
그것을 알면 되는 것이었다

나도 이제 그 꿈에 참석합니다

살점들이 떨어져 나갔어. 지난밤 꿈에, 우리 둘이 나뉘던 사과주스는 말라 없어졌고, 전화기는 길을 잃은 듯 공중에 대통령대롱 매달려 있었어.

천둥번개 치던 날 그 공중전화박스 안으로 우리 둘은 새차게 내리던 비를 피하러 들어갔었지. 이미 흠뻑 젖어있던 상태여서 물기를 털고 짜기 바빴는데 공중전화박스가 웬만큼 작아야지? 우리 둘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쭈뼛쭈뼛 살이 닿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그건 가능하지도 않았잖아.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린?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잖아. 하늘에 구멍이 난 것 처럼 비가 새차게 내리고 있었다고 해도 말이야. 그 결정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됐기에 어쩌면 조금 편하게 그 좁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비는 그치지 않았어.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이 흐르고 피곤해진 우리는 스르르 앉아 즐기 시작했었지 아마? 기대고 있던 벽에서 떨어져 점점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했을 때 너도 깨어있었을까? 쭈그러 앉아 있는데 너는 머리를 앞으로 죄이다 균형을 잃고 깨면 다시 등을 벽에 기대고, 나는 옆으로 쏟아지는 무게 덕에 뽕족한 네 어깨에 머리가 닿다가 또 깨서 다시 벽에 등을 기대었는데. 너무 피곤했던 우린 잠결에 서로에게 기대기로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도 짜릿하고... 편안함이란 흥분이란 같이... 핑계가 결정이 되도록... 비는 밤새 내렸고 새벽쯤 찾아들더니 아침이 왔을 때에는 햇별이 짹짹했어. 부신 눈을 뜨고 찬찬히 몸을 움직여 깨는데 그 기척에 너도 깰잖아. 네 기척에 살짝 놀라 네 눈을 봤어. 서로를 봤어. 웃기 시작했어. 작게 조용하게 몸을 들썩이고 소리를 내면서. 붙어있던 몸을 떨어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닿은 상태로 우린 들썩들썩 웃고 미소 지었어. 햇별이 네 무릎을 감싼 손가락들에 닿아 너와 함께 살며 만들어지고 만들어온 주름 하나하나를 비추는데 그 하나하나의 깊이가 마음속 어딘가를 속 속 찌르는 것 같았어. 내가 미소를 지우니 너는 내 눈을 바라봤고 눈이 손가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서 너도 손가락으로. 네가 보고 있던 건 뭐였을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가녀린것들속에서자라나는줄기들이내머리를꼬았던것일지도모
모아숨을쉬려고하고있어대게는우리가우리라고부르는이들이누
름답다세월이지나가는게원지잘모르겠어지난밤에도지지난밤에
양옆을지나가고내눈을똑바로바라보는사람들때문이었지그들은
무아름답기때문일거야분명차나한잔하고가분명히당신에게도쏟
없어그러니까여기서말해당장말하지않으면영혼을팔아버리는요
은눈을꿈뻑거리고나를내눈동자를즉시한다나는그대로얼어버린
꾸비가내린다그눈에서무수한단어가나오는것을봐버렸다이사람
양을하고다시녹아떨어졌다가이녹은액체로내몸을타고올라와다



가녀린것들속에서자라나는줄기들이내머리를꼬았던것일지도모른다숨을쉴수없는사람들앞에서나는그들의숨까지
모아숨을쉬려고하고있어대개는우리가우리라고부르는이들이누구인가생각하는우리는가끔촉은하기도하지만참아
름답다세월이지나가는게뭔지잘모르겠어지난밤에도지지난밤에도잠을이루지못했던것을내뒤에숨은사람들과앞뒤
양옆을지나가고내눈을똑바로바라보는사람들때문이었지그들은아름답다지나가던개미들도그들에게달라붙는건너
무아름답기때문일거야분명차나한잔하고가분명히당신에게도쏟아져나올말이있을텐데물음내뒤엔더이상숨을곳이
없어그러니까여기서말해당장말하지않으면영혼을팔아버리는요괴가널잡아갈꺼야당신어서말해어서말하라고당신
은눈을꿈뻑거리고나를내눈동자를즉시한다나는그대로얼어버린다심장이굳었고피는거꾸로솟았고눈에서는자꾸자
꾸비가내린다그눈에서무수한단어가나오는것을봐버렸다이사람은가만히서있지만갈기갈기찢어졌다가다시사람모
양을하고다시녹아떨어졌다가이녹은액체로내몸을타고올라와다시내눈에서흘렀다

스스로에게 물을 자신을 찾는다. 따라가는 마음이었을까
기다리는 마음이었을까. 목적지를 그려내지 못하는 발자국은 쫓아오고.
다가왔던 목소리들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들려오는 새소리는
회의적으로 시작되고. 묻는 답에 대답하듯 밥을 챙기고 먹고. 지나친
시간도 없다는 듯 멍하니. 시계를 보며 하루를 이틀을. 방황했지만 더 큰
방황이 방향 없이 뒤편다. 버젓이 고개를 들어 올리지만 눈은 도저히
치켜 떠지지 않고. 우리의 만남 전으로 돌아간다. 두 번의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있던 고민의 풀밭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포개어진다
밟힌다.

시작에 있어 버거웠던 것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우리에게

부유하는 망설임

불어나는 생각들

숨죽이고 고요히

숨을 내쉰다

다시 연명

쉬기를 멈추고 돌아서면 후회의 숨이 들려온다.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듣지 않은 것처럼. 들려오며 들어오던 겹겹이 만나던 숨소리
사이에. 누워서 함께 숨죽이고 싶은 마음. 그것을 담아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여행을 갈까. 연하게 딱딱한 생각을 하는 것은
집어던지고. 두근거리며 뛰는 것과 길쭉한 뼈의 근육으로 걷고 또 걷고.

우리의 후회가

밀
려

별이 언젠가 등 뒤를 때리고. 눈은 떠진 상태로 아래로 빠지기 시작. 어 - 어 - 어 - 할 겨를도 없는 속도로 빠르고 부드럽게. 속까지 비워냈던 자리에 가득가득 들어찬다. 빌던 손은 끝끝내 열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고개는 사방으로 젖혀지고 문은 열림과 닫힘을 반복하고.

부지런히 잇고 잠을 자는 것을 꿈꿔본 적 있다

다시 눈앞

낮은 온도의 물 한 잔

다시 그 끝에

잇혔던 귀가 움직인다

당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가

그리고 당신은 잠에서 꿈에서 깨었다. 유령처럼 걸어 다니며 공기 중에 단어 몇 개를 흘린다. 단어가 떨어지지 않고 부유한다. 몇 시가 되었을까. 창문뿐이었는데 회색빛 철창과 사이사이에 있는 연한 파란색이 나란히 드러난다. 아침이 오고 있다. 오지 않았으면 했던 아침이 오고 있다.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당신과 나는 어디로 향할까. 늦은 밤까지. 이른 아침에. 그 이전의. 그 이후의 ○삶은 없다는 듯이.

당신은 조용히 부엌 불을 켜고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다. 무엇인가 앞에서 골똘히 생각하는 듯 아무 생각 하지 않는다. 당신은 분명 끊임없이 감각하고 있다. 감각의 기억을 몸에 담고 있다.

○ 생과 삶 각각의 단어를 발음해 본다. 끊어지는 소리와 이어지는 소리가 난다.

우리가 여러쪽의 눈을 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각자는
항상 다른 것을 인지하고 감각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생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야기 할수록
끊임없이 (나에게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 타인과 함께하며 잠재되어
있던 문고리를 하나씩 잡고 문을 활짝 열며 그 속으로 들어간다. 함께 하는
것의 환희. 환희는 기쁨 이상 이하를 담는다. 함께 함으로서 잠재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감정과 상황들에 대비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지탱해
가는 힘. 발 아래, 땅으로 깊게 내려진 뿌리.

꿈을 꾸곤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많이 꾸곤 것 같은데, 힘든 꿈이었나.

일어났더니 발가락이 아팠어.

발가락을 그렇게 구부린 채로 꿈을 꿨나?



은 편이
를 하기
4 정도
만들기
않았다.
이 입에
어?라는

우리가 여러쪽의 눈을 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각자는 항상 다른 것을 인지하고 감각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생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야기 할수록 끊임없이 (나에게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 타인과 함께하며 잠재되어 있던 문고리를 하나씩 잡고 문을 활짝 열며 그 속으로 들어간다. 함께 하는 것의 환희. 환희는 기쁨 이상 이하를 담는다. 함께 함으로서 잠재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감정과 상황들에 대비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지탱해 가는 힘. 발 아래, 땅으로 깊게 내려진 뿌리.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많이 꾸는 것 같은데, 힘든 꿈이었나.

일어났더니 발가락이 아팠어.

발가락을 그렇게 구부린 채로 꿈을 꿨나?

글쓰기를 할 때 혼자 있는 편이었고, (아침에 쓰는 편이 대부분이기에) 누군가 일어나서 채비를 하고 말을 걸어오고 아침을 하기 전에 나는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오늘도 일어나서 ¼ 정도 글을 받아 적어 내려가고 있을 때, 인기척이 들려오고 아침을 만들기 시작하고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숨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다. 보호하려 들지 않았다. 묻는 질문에 대답하며, 덜어주는 아침도 간간이 입에 넣으며 받아 적기를 계속한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나는 오늘 꿈꿨어?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받아 적는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모르는 것. 혼자 있는 상태에서만 받아쓰기를 해야 한다는 강박. 다른 이가 있을 때에는, 혼자 있기 힘들 때에는, 다른 이의 권유와 그곳에 참석하고 응하며 받아쓰기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토록 지속하고 싶던 글쓰기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오늘은 문고리를 하나씩 함께 잡았고 어딘가에 빛 없이 존재하던 문을 천천히 활짝 열었다. 그 속으로 걸음을 들었다. 희미한 윤곽이 보이는 환한 곳으로. ▽

당신은 꿈속에서조차 아주 엄했다. 당신의 룰은 더욱 엄격했고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날카롭게 일러주었다. 나는 잠에서 깬고 당신과 벽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다. 꿈속에서 꿈처럼 지나간 이야기의 간극이 크다. 당신은 지난 밤 꿈에서 파란색과 금색이 섞인 머리 색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조그맣고 팔 다리는 길쭉한데 반해 몸통은 작고 피부는 까무잡잡했다. 현실의 당신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꿈속에서는 그 사람이 분명 당신이었다. 네 시간을, 네 시간만을 자고 일어났다. 어떠한 긴장에서부터 오는 반응과 신호일까. 일어나면 잠에 들었을 때와 같은 어둑하고 따듯한 조명이 네 시간 동안 누워있던 이 공간을 들성들성 간접적으로 덮고 안고 비추고 있다. 여전히 같은 빛. 당신 전화기에서 알람이 울리자마자 꺼진다. 아직 해가 뜨려면 몇 시간이 남았다. 아랫배가 잠시 동안 찌르듯이 아파서

당신 방 문 앞을 지나 어쩔 수 없는 인기척을 낸다. 당신이 깨지 않기를. 겨우
든 잠을 잘 수 있기를. 가능하면 꿈도 꿀 수 있길.

나는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달고 싶다. 모르겠는 문을 도대체
몇 개나 혼자 열어젖히고 통과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에게 쓴
편지에서와는 달리 잠에 들 수 있었다. 고민의 고민은 지난 밤 잠과 나를 멀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눈을 감고 나서 당신이 일을 하며 넘기는 종이 소리
몇 번도 듣지 못하고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다. 네 시간이 지났다. 다른
세계라고 하는 곳에 당신이 다른 모습을 하고 그 네 시간 속에 하염없이
등장했다. 꿈에서 깨 들성들성 잘려나간 몽상의 조각들은 다른 크기와
밀도를 가지고 감각으로 남아있다. 강력하게 남겨진 것은 정말이지 당신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엄한 태도였다. 당신은 당신의 날카로운 따듯함을
그곳에서도 감추지는 못했다.

이 곳이기에 불가능한 것들을 생각했고 그 생각을 곱씹다가 한
사람은 떠났다. 이 나라에만 있으면 다른 이들과 함께 주정뱅이가 된다는
사실에 혀를 차며 불평했지만 미소를 띄고 있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다행이라는 눈짓을 했다.

▼ 요가원의 종소리를 생각한다 학교의 종소리를 생각한다
사찰의 종소리를 생각한다

1 쏟아져 들어간다 이 피 이동 손이 차갑게 식는다
숨이 닿는 순간 바짝 백발의 손이 넘겨졌었던 순간
최선의 눈과 숨 팔을 타고 넘어질 거야 우리는 우리
앞 의식하는 몸 요동치고 이 몸과 저 몸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들 2 계속 달리는 기차 속이다
아이 한 명 부릅뜬 짝 찬 터질 것 같은 두 눈알
3 거의 이곳에 녹았다 그 속에서 그 안으로 오늘
내일 있을 의식이 시작된다 둘이서 셋이서 하나로
공기가 만날까 터질까 4 네 피 속에 그녀가 있어
그녀가 흘러가는 거야 파도를 몰아 당신 꿈으로 몸을
던지고 편안하게 해칠 거야 끈적하게 흐를 거야 바로
아래로 닿고 싶었던 구름 하나로 점 속으로 꿈 속
의식으로 5 변신 그녀가 된다 6 깨어난 꿈에서
발견된 뒤틀린 사진 너는 여기 있고 저기 있다 초대
다른 령들 주기 다 주기 1 혼 자 남 앓 어
꿈 에 다 가 고

당신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나누어서
아름다움을 타인에게서 발견하여서
당신 저와 거리를 두지 말아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당신 앞에서 옆에서 곁에서 흘린 수
만개의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당신 얼굴 옆면 한쪽 눈 곱게 곱은
등을 보며 당신 아름답다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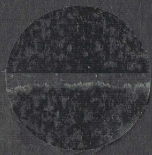
받는사람: 한 수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현리 6길 61

110동 1301호

우. 17939



답장 주미원